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3460-1072)

김영선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3460-1272)

차 례 ● ● ●

1.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요
2.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3. 기존 미·중 대화 경제 트랙과의 비교 및 평가
4.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4년 7월 9~1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음.
 - 전략 트랙에서는 양국간 협력 증진이 필요한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및 글로벌 이슈, 에너지 및 기후변화, 환경보호, 과학기술 및 농업, 건강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됨.
 - 경제 트랙에서는 경제정책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 안정 및 개혁 등에 관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 제6차 미·중 대화는 기존 미·중 대화가 안고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현안을 조율하고 새로운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대화 채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재개 논의,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 제시,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항목에서 이전과 달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합의사항이 도출됨.
- ▶ 한국의 입장에서 제6차 미·중 대화 결과가 주는 시사점 및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대화를 통해 미·중 간 갈등국면이 완화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ITA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미·중 간 협상 진행상황 파악, 파급효과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양국의 BIT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한·중 FTA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요

■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4년 7월 9~1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음.

- 미·중 대화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¹⁾와 고위급대화(SD)²⁾를 합쳐 대화의 수준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2009년부터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한 차례 개최되고 있음.
- 2009년 제1차 대화(7월 27~28일, 워싱턴), 2010년 제2차 대화(5월 24~25일, 베이징), 2011년 제3차 대화(5월 9~10일, 워싱턴), 2012년 제4차 대화(5월 3~4일, 베이징)에 이어 2013년 제5차 대화(7월 10~11일, 워싱턴)가 개최되었음.
- 대화의 취지와 성격에 걸맞게 미·중 대화에는 양국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부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
-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존 홀드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처의 수장들과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중국은 왕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로우지웨이 재정부장, 완강 과학기술부장, 까오후청 상무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로 대표단을 구성함.

■ 미·중 대화는 전략 트랙(Strategic track)과 경제 트랙(Economic track)으로 나뉘어 진행됨.

-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전략 트랙에서는 양국간 협력 증진이 필요한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및 글로벌 이슈, 에너지 및 기후변화, 환경보호, 과학기술 및 농업, 건강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됨.
- 제이콥 루 재무장관, 왕양 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경제 트랙에서는 경제정책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 안정 및 개혁 등에 관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본 보고서는 제6차 미·중 대화 개최 결과 경제 트랙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와 합의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미·중 대화를 통해 중국의 개방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중국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함.

1) 미·중 양국은 다양한 경제관계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 경제협의체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략경제대화(SED)를 유지해왔음.

2) 미·중 양국이 정치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해온 차관급 대화.

2.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가. 전략 트랙

■ 미·중 양국은 제5차 전략 트랙에서의 합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제6차 미·중 대화 전략 트랙에서 양자 및 글로벌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기존 합의 주제를 세분화하였음.

- 양자 협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 에너지, 환경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116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 점을 도출하였음(표 1 참고).
- 기후변화, 핵확산 방지, 군 당국간 협력, 야생동물 밀매 적발, 한반도 비핵화, 시리아·이란·아프가니스탄 문제, 국제 보건수준 향상 등에 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미·중 S&ED 전략 트랙에서는 제5차와 비교하여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분야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표 1. 제6차 미·중 S&ED 전략 트랙 분야별 주요 합의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양자 협의 및 양국간 협력 증진 (21)	- 미·중 신형 대국관계 건설 촉진 - 양국 고위급 회담 지속 강화 - 양국의 전략안보 관계 공고화 - 양국간 주요 군사행동 상호 통보 시스템과 공해(空海)상 상호 행동규칙 마련 가속화 - UN 반부패 협약, G20, APEC 등의 다자 협력체제하에서 반부패 문제에 관한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로 결정 - 중국해관총서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협력하여 독극물 소포,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그 밀수제품 반입 금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14)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정착을 위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란 핵문제를 비롯하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남수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 및 평화유지를 위한 의견 공유 - 양국은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지역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합의
범국가적 협력 (6)	- 양국의 자매결연 도시간 경제·문화·교육 협력,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양국의 지역협력 촉진을 위해 2014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제3차 미·중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간 경제 협력,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의 의제에 관해 토론 진행 - 에코시티 시범지역(중국 6개 도시, 미국 3개 도시) 관련 도시관리, 기술인력, 에너지 기구간 정식 교류 지속 강화
에너지 분야 및 기후변화 협력 (32)	- 중국 국가에너지국과 미국 무역개발청(USTDA)이 셰일가스 기술사절단을 공동 조직하여 미국 셰일가스 발전 및 기술 공유 - 핵안전 관리감독, 핵기술 평화적 이용, 민간 원자력 기술 및 연구 개발,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 - 미·중 친환경 에너지 공동연구센터 회의 진행 -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자동차 및 산업 에너지 효율 협력 강화 - 미·중 기후변화실무단(Climatic Change Working Group) 주도하에 대형 차량, 스마트그리드, 탄소 포집·사용·저장,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협의 강화

표 1. 계속

분야	주요 내용
환경 분야 협력 (7)	- 대기·수질 오염 관리, 특히 미세먼지(PM2.5), 오존 규제, 수질 관리 관련 경제정책 분석 확대 등 협력 강화 - 양국은 환경 법률 제정·실시·준수·판결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중·미 환경 입법 연구토론회'를 2014년 7월 11일 개최하기로 합의 - 녹색발전, 저탄소경제를 기지로 아태지역 삼림 지속경영과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 어업, 습지 보호, 자연보호구역 관리 등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협의 지속
과학기술 및 농업 분야 협력 (8)	- 해양·재해성 기후 관측, 정보 등의 기술 교류 강화 - 어업, 수산 양식 과학 등과 관련된 토론회를 위해 '제1차 미·중 어업 정기대화'를 2015년 개최 예정 - 식량·식품 안전, 농업 지속발전 등에 관한 협력 강화
건강 분야 협력 (6)	-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일반의 제도, 의료보험, 의료 정보기술, 병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공유와 협의 지속 - 전염병 대응 협력 강화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관련 양자 대화 (22)	-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이슈 논의 및 협력 지속 - 에너지 효율, 화석연료, 석유·가스 산업, 선진 바이오 연료, 재생 에너지 산업, 우주, 해양 과학, 지진·환경·농업 과학기술 등에 관한 양자 대화 개최 예정

주: 1) () 안은 항목 수

2)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관련 양자 대화'는 각각의 협력 분야에 대한 양자간 대화 개최를 의미함.

자료: 미 국무부,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14 Outcomes of the Strategic Track"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나. 경제 트랙

■ 제6차 미·중 대화 경제 트랙에서 미·중은 양국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의 동력을 찾자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함.

- 먼저 이전 미·중 대화 경제 트랙 논의 결과 도출된 합의사항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 양국은 경제정책 공조 강화(10개),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22개),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10개),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15개)의 4개 분야에서 총 57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냄(표 2 참고).

■ 이번 제6차 미·중 대화에서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재개 논의,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 제시,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항목에서 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합의사항이 도출됨.

■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 재개 논의) 미·중 양국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갖고, 수주일 내 ITA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재개의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함.³⁾

3) ITA는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목표로 1996년 12월 체결(1997년 7월 1일 발효)된 WTO 협정의 일부로, WTO 전체 회원국이

- 2012년 ITA 참여국간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2013년 11월 중국과 미국 등 참여국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⁴⁾
- 이에 제6차 미·중 대화에서 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ITA 확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됨.

■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 제시)** 양국은 비차별, 공정성, 개방 및 투명성에 입각해 높은 수준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관련 협상 일정을 제시함.

- 양국은 BIT 관련 상호 이견을 좁히고 2014년 말까지 주요 이슈와 BIT 협정문의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 또한 2015년 초에는 양국이 각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네거티브 리스트’ 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함.
- 2013년 제5차 S&ED에서 양국이 협상의 접근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음.⁵⁾

■ **(경쟁정책의 중요성 공동 인식 및 중국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 제고)** 양국은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중국은 3개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약속함.

- 양국은 경쟁정책의 목적이 개별 경쟁자 또는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 및 경제 효율성 증진에 있음을 공동 인식하였으며, 양국 각자의 경쟁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중국은 자국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물론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⁶⁾

■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중국은 제18기 3중 전회(2013. 11)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서비스 부문 발전·육성을 위해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육아 및 양로, 건축 디자인, 회계 및 감사, 물류,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설계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아닌 ITA 참여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임. 현재 ITA 참여국은 78개국이며, 이들은 전 세계 IT 제품 수출의 약 97%를 차지함. 그러나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ITA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2012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주도로 ITA 적용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개정협상이 개시됨.

4) *International Trade Daily*(2013. 11. 21).

5) 양국은 제5차 S&ED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BIT의 중요성 인식, BIT 체결을 위한 노력 지속 등 기본적인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을 지속한 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6) 중국의 반독점법은 독립된 단일 행정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3개 기관(상무부 반독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반독점불공정경쟁 집행국)이 사안별로 나누어 집행하는 방식임.

■ (기타 사항) 이외에도 중국은 국유자본수익금의 공공재정 비중 확대, 에너지 관련 통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새로운 합의사항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은 국유자본수익금이 공공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높여 사회보장 및 민생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유자본수익금의 공공재정 예산 편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함.
- 양국은 최대 에너지 소비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관련 통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중국은 에너지 관련 공식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기능 개선 및 유가 변동성 축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증권 및 선물시장 개방 지속, 채권 및 금융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 할 예정이며, 예금보호제도 설립 가속화, 금융기관의 시장퇴출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표 2. 제6차 미·중 대화 경제 트랙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

분야	주요 내용
경제정책 공조 강화	- 양국은 G20 합의사항인 환율 불균형 및 경쟁적 환율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함. - 중국은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대로 시장지향적 환율제도 개혁과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은 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통계공개기준(SDDS) 가입을 IMF와 협의하기로 함. - 중국은 금리시장화 개혁 지속 추진, 시장을 통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약속(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확대 촉진 등) - 미국은 연방재정적자를 축소(2024년까지 GDP 대비 약 2%)하기로 함. - 양국은 거시경제정책의 협력과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시의적절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내수 주도의 성장을 위해 소비촉진에 중점을 둔 조치(사회보장제도 개선, 농민의 토지 사용권 개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를 시행하기로 함. -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에너지 개혁 촉진 등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에 합의함. - 중국은 국유자본수익금이 공공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약속함.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 양국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조만간 ITA 확대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재개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함. - 양국은 BIT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의 주요 일정을 제시함. -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현대식 기업지배구조 개선, 혼합소유제 허용 등)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국유기업의 현대화 및 관리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보 교류기구를 설립하기로 약속함. - 양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약속함. - 미국은 수출제한조치 개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민간사용 목적에 한해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권장하기로 함(양국은 첨단기술 교역 관련 작업반 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미국은 천연가스법(NGA)에 의거 LNG 수출 승인절차에 관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양국은 관련 기업들에 각각의 LNG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참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함. - 중국은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시장의 분야별 점진적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약속함.

표 2. 계속

분야	주요 내용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 G20, APEC 등 다자체제 내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은 에너지 관련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 양국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개혁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증권 및 선물시장 개방을 지속하고, 채권 및 금융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 - 중국은 예금보험제도 설립을 가속화하고, 금융기관의 시장퇴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자료: 미 재무부(2014), "Sixth Meeting of the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Joint U.S.-China Economic Track Fact Sheet"를 근거로 필자 작성.

3. 기존 미·중 대화 경제 트랙과의 비교 및 평가

■ 6차에 걸쳐 개최된 미·중 대화 경제 트랙에서 미·중 양국은 4~5개로 구분된 대주제 아래 세부 항목별로 논의를 전개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대주제 구성 틀은 유지된 가운데 각 대화에서 중점 논의한 이슈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남(표 3 참고).

- 제1, 2차 대화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제회복에 논의의 초점을 둔 반면, 제3차 대화에서는 기존 대화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처음으로 발표함.
- 제4차 대화를 계기로 양국은 대주제를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한 경제정책 공조,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분야로 조정하고 해당 분야의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함.
-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 및 시진핑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차 대화에서 양국은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이전 대화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를 거둠.
 - BIT 협상 방식('네거티브 리스트')과 원칙 합의, 중국의 WTO GPA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안 제출 약속,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허용, 회계감사 관리·감독 협력 및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금융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이 제5차 대화의 핵심 합의사항임.

■ 다섯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존 미·중 대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를 노출함.

- 대부분의 주요 의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양국간 무역구제조치를 비롯한 주요 통상분쟁, 위안화 절상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침.

○ 1~5차와 6차 미·중 대화 경제 트랙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표 2와 표 3 참고).

- 또한 양자간 경제현안에서부터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 결과 논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차 미·중 대화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실행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일부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ITA 확대를 위한 협상 추진, 공공재정에서 차지하는 국유자본수익금 비중 확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장개방 내용 등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임.
- 또한 BIT 협상 방식의 합의에 이어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임.
- 그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점차 세부적으로 부문별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한 논의와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가 새로운 의제로 등장함.
- 중국이 이번 제6차 미·중 대화를 활용하여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전면적 경제개혁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임.
- 중국은 자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2014년 3월)를 통해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전면적 경제개혁의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 제6차 대화에서 이를 더욱 확고히 함.
- 제6차 대화에서 중국이 밝힌 주요 합의사항 중 금리시장화 개혁,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국유기업 개혁 심화, 국유자본수익금의 공공재정 비중 확대,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등은 제18기 3중 전회에서 이미 제시한 개혁방안임.

표 3. 제1~5차 미·중 대화 경제 트랙 주요 논의내용 비교

구 분	주요 의제 및 합의내용
제1차 대화 (워싱턴 DC, 2009. 7. 27~28)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 ·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분야 공조 강화 · 뚜렷한 세계경제 회복 기미가 보일 때까지 경기부양책 조기철회 불가 합의 - 투명하고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금융 시스템 규범화 및 개방화 구축 강화 -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 무역 및 투자 시스템 개방 노력, 보호주의 반대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기능 강화
제2차 대화 (베이징, 2010. 5. 24~25)	-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촉진 ·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저축확대 정책을 강조, 중국은 소비 주도의 경제성장정책 추진 강화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 협력 합의 -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탄력적이고 친시장적인 금융 시스템 역할의 중요성 강조 · 양국 금융 시스템의 규범화 및 감독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표 3. 계속

구 분	주요 의제 및 합의내용
제3차 대화 (워싱턴 DC, 2011. 5. 9~10)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 발표 -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금융 시스템 강화와 금융감독 개선
제4차 대화 (베이징, 2012. 5. 3~4)	-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 ·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해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미국은 연방재정적자 축소, 국민저축 증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조치 추진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 BIT 협상 추진 노력 · 중국의 WTO GPA 가입 논의 지속, 중국은 2012년 말까지 수정 양허안 제출 약속 · 기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국제규범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 중국은 금융 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약속함(합작증권회사의 외국인 지분 참여 비율을 33%에서 49%로 확대, 외국인의 합작금융중개업 설립 허용 등).
제5차 대화 (워싱턴 DC, 2013. 7. 10~11)	- 경제정책 공조 강화 · 양국은 환율 유연성 제고하기로 약속 · 미국은 연방재정 축소, 중국은 금리시장화 개혁 추진 등을 합의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 양국 BIT 협상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합의 ·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부문 개방 허용 -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 중국은 금리 자유화를 위한 시장개혁 추진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 약속(외국 금융기관 현지 법인에 대한 국채선물거래 허용, 소비자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자료: 미 재무부의 「제1~5차 미·중 대화 경제 트랙 Fact Sheet」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제6차 미·중 대화는 기존 대화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했으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현안을 조율하고 새로운 협력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대화 채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지속가능한 경제관계 발전의 여지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사점

■ 한국의 입장에서 제6차 미·중 대화 결과가 주는 시사점 및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경제부처 모든 수장이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갈등국면이 완화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과 동북아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ITA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 IT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IT 제품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됨. 따라서 ITA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미·중 간 협상 진행상황 파악, 파급효과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미·중 BIT 체결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 방식의 협상이 본격 추진될 경우, BIT 체결로 인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투명해지고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의 대중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양국의 BIT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한·중 FTA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⁷⁾
- 중국은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물론 서비스 산업 및 금융시장의 발전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변화 동향을 파악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방안 마련에 활용해야 함. **KIEP**

7) 한·중 제12차 FTA 협상(대구, 2014. 7. 14~18) 결과 서비스 관련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투자 분야 역시 일정 기간 내 후속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7. 18).